

{ 어떻게 하면 } 주목을 끌고 성공할 수 있을까?

주목의 심리학

벤 파 지음

AKB48은 지난 2009년 이래 일본에서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한 싱글을 21개 연속으로 내놓은 일본 팝그룹이다. 지난 2012년에만 2억2500만달러(약 2529억원)를 벌어들이는 등 8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뮤지션 집단으로 성장했다. 리더 싱어는 없고, 멤버 수가 80~95명에 달하는 AKB48은 어떻게 세계 최고 가수의 대열에 끼였을까?

물론 밝고 중독성 있는 노래, 귀여운 외모, 깜찍한 의상 등이 인기의 주된 원인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그룹이 '주목'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총선거' 시스템이다. 팬들은 이 그룹의 최신 싱글을 사면 투표권을 얻는데, 다

음 앨범에 참여한 멤버들을 투표할 권리를 얻게 되는 셈이다. 이 선거 과정을 통해 12~20명의 멤버가 선발된다. 지난 2013년에는 일본 전체 인구의 2%에 달하는 260만명이 총선거에 참여했다는 결과도 있다.

세계 10대 IT 저널리스트이자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차세대 벤처 자본가 벤 파(Ben Parr)가 펴낸 '주목의 심리학'은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ABK48의 사례처럼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7가지 법칙을 알려준다. 벤 파는 AKB48은 '총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팬들에게 '의미 있고, 중요



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악플보다 무플이 더 두려운 시대'라는 말이 있다. 이 와 함께 '관심병'이란 행동하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말이 생겨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구나 타인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 이것은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소비자들의 관심과 주목이 곧 매출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한다. 어떻게 하면 내 페이스북이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호감이 가는 그 사람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프레젠테이션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제품이 눈에 띄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치인들의 최대 고민 중 하나인 '어떻게 하면 한 표를 더 얻을 수 있을까?'까지 말이다.

벤 파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게임, 대중음악, 클래식, 광고, SNS, 영화, 시트콤 등 다양한 사례를 이용해 설명한다. 또 우리가 한번쯤은 생각해봤을 법한 '요즘 인기 있는 노래가 나도 덩달아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 '왜 남자는 빨간색에, 여자들은 노란색에 가장 먼저 반응할까?' 등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면서 독자들을 이해시킨다.

"뭔가에 몰두해서 대단한 아이디어를



AKB48은 팬들이 수십명의 멤버 중 새 앨범의 선발 멤버를 선택할 수 있는 '총선거' 시스템을 통해 주목받은 J-POP 그룹이다. <AKB48 홈페이지>

떠올리거나 훌륭한 물건을 만들어 내면 사람들이 결국 알아보고 찾아올 것이다'라는 믿음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 시대다." 다양한 현장 사례와 흥미로운 심리학 연

구뿐만 아니라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저자의 필력이 무엇보다도 흥미진진하다.

<세종서적·1만5000원>
/김경민기자kiki@kwangju.co.kr

위로받고 싶은 분들을 위한 클래식 음악의 친절한 길라잡이

클래식 400년의 산책

이재훈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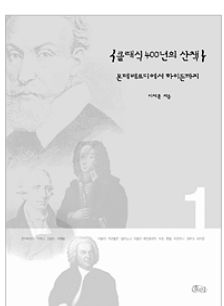
어렵게 느껴지는 클래식 음악의 친절한 길라잡이 '클래식 400년의 산책-몬테베르디에서 하이든까지'가 나왔다.

MBC PD 출신인 저자 이재훈씨는 '이제는 말한다' 시리즈와 함께 '모차르트, 천 번의 입맞춤', '비엔나의 선율, 마음에서 마음으로', '정상의 음악가족 정트리오' 등 음악 관련 다큐멘터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왔다.

이번 책에서는 비발디와 코렐리 등 바로크 시대 작곡가와 바흐와 헨델, 하이든의 음악을 집중 조명한다.

저자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곡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풀어 써 흥미를 유발한다. 특히 책을 읽으면서 동시에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한국 한국 소개할 때마다 이야기와 함께 유튜브 검색어와 그에 해당하는 쿼리코드를 실어 쉽게 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소개하는 첫곡은 최초의 오페라



로 알려진 몬테베르디의 '에우리 디체'다. 파헬렐의 '캐논', 비발디의 '사론', 비발디의 '사계',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헨델의 '리날도' 중 '울게 하소서', 하이든 교향곡 '고별' 등 직접 들으면 "아, 그 곡이었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친숙한 곡들이다.

MBC에서 해직 후 각종 매체에 음악칼럼을 써온 그는 "내가 가진 것은 음악사랑 뿐이었고, 이 글을 쓰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클래식 음악으로 위로받고 싶지만 아직도 낯설게 느끼는 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책을 썼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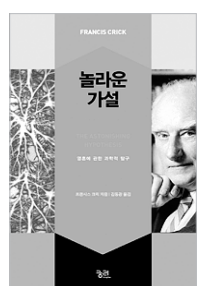
앞으로 모차르트와 베토벤을 다룬 2권과 슈베르트, 쇼팽, 브람스, 바그너, 브루크너, 말러, 메시앙 등의 작품을 다룬 3권을 출간할 예정이다. <호미·1만5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놀라운 가설=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 프랜시스 크릭의 역저. 책은 오랫동안 '영혼'이라고 불려왔던 것과 '의식'이라는 것을 비로소 과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게 되고, 인간의 내면 상태는 뇌 속 뉴런의 네트워크의 특성이라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크릭은 자신이 연구를 통해 얻은 중간 결과를 내놓는데 그치지 않고 후배 과학자들에게 의식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룰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구리·2만3000원>

▲IT 보안의 정석=정보가 기업의 주요 자산이 된 오늘날, 이제 더 이상 물리적 보안과 네트워크 보안만으로는 자산을 지킬 수 없다. 웹이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안에 개인과 기업 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웹 위험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대응하는 작업은 꼭 필요한 일이다. 책은 바로 그런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다. 수준 높은 보안성을 확보하는 것은 개인과 기업의 미래 경쟁력이다. <매일경제신문사·1만4000원>

▲미야모토 소위, 명성황후를 찌르다=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재조명했다. 12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범인의 정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은 미우라 고로 주한공사가 총책임자가 되어, 대원군의 쿠데타로 위장하고 낭인부대를 동원하여 명성황후를 살해했다는 정도다. 저자는 황후 시해범이 낭인이라는 통설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을미사변은 일본 군부의 군사 작전이었었고, 그 범인 역시 군인이



라는 것이다. <메디치·1만5000원>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불평등한 한국에 대한 진단과 대안으로 구성됐다. 책에서 진단하고 있는 불평등의 범위는 소득, 임금, 교육, 노동, 젠더, 복지, 조세, 재정, 건강, 주거, 지역, 경제 구조 등 매우 포괄적이며 광범위하다. 그만큼 한국 사회에 불평등이 만연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집필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오랜 기간 해당 분야에서 쌓아 왔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대중적으로 쉽게 읽힐 수 있도록 서술했다. <후마니타스·2만5000원>

▲그 남자의 재즈 일기=재즈 입문자를 위한 명반 컬렉션. '그 남자'가 뉴올리언스의 흥등가, 시카고의 클럽, 뉴욕의 뒷골목과 카네기홀을 함께 거닐며 재즈를 알아준다. 재즈 칼럼니스트 황덕호가 2002년 출간했던 '그 남자의 재즈 일기 1, 2'를 한 권으로 묶어 개정판으로 펴냈다. 1999년부터 3년 동안 책에 수록된 모든 음반을 직접 들으며 쓴 2500매의 원고에 300여 매의 원고를 추가 집필했다. <현암사·2만7000원>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전략과 전술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고전이 있다. 동양의 '손자병법'과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이다. 독일 아우크스부르크대학에서 철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저자 이진우가 '전쟁론'의 원문을 새로 번역하고 오늘날에 필요한 전략의 관점에서 방대한 내용을 간추려 다시 구성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장마다 해설을 덧붙였고, 유사한 주제를 '손자병법'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덧붙였다. <흐름출판·1만8500원>

어린이 책

▲니이미 난키치 동화선=일본 제국주의가 대륙침략을 노골화하던 시기에 일본 내 시대를 흐름에 반기를 들고 인간 본연의 모습을 그린 일본 동화작가 니이미 난키치의 작품. 일제강점기 조선인과 일본인의 인간적인 교류 등을 담은 반전평화의 동화선을 김정훈 전남과학대 교수(근로정신대 시민모임 공동대표)가 국내에 번역, 공개했다. <케이비북스·1만원>



▲스마트폰 자격증이 필요해=좋은 습관 길러주는 생활동화. 편리하게 생활하기 위해 만들어진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을

어린들이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스마트폰의 잘못된 사용 습관을 짚어 주고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기보다는 스스로 조절하면서 건강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스콜라·8500원>

▲국가야, 왜 얼굴이 두 개야?=우리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생각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반쪽을 채우는 어린이 세상 수업' 시리즈. 건강하고 주체적인 의식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어린이들이 가져야 하는 교양이 무엇인지 생각

하게 한다. 2권 '밤대로 하자고?', 3권 '다른 게 틀린 건 아니잖아?' 등시 출간. <양철북·1만1000원>

▲토끼 아저씨와 멋진 선물=엄마의 생일 선물을 사색이라는 소재를 사용해 단순하지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문학적인 그림으로 시선을 끈다. 1963년 칼데콧이나 상을 수상한 이 작품은 중국, 일본,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핀란드, 독일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고전이다. <시공주니어·8000원>

장성군 북하면 소재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임야 매매

편백, 삼나무 수령 40~50년생 조림
50만주(현재 묘목 : 주당 3000원)

계곡이 깊어서 물이 마르지 않고
공기와 경관이 최상지로
계곡따라 산책로 3km 조성 되어 있음!

면적 107만㎡ 매가 25억
(3.3㎡(당) 평당 7,700원 정도)

010-6518-7123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치평동 정현철

상가·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1.5억(보1.3억 월600만)
- 월산동 2층건물 매 13억5천(보1억 월680만)
- 수완동 4층건물 매 24억(보2.7억 월 1,140만)
- 산정동(축석거리) 2층건물 매24억(보2억 월1,000만)
- 월계동(철단) 3층건물 매25억(보2억 월 1,000만)
- 월계동(철단) 상가건물 매70억(보14억 월3,000만)
- 용봉동 2층 상가건물 매12억(1억1천 월580만 포함)
- 풍암동 4층 상가주택 매 7.2억
- 쌍촌동 4층 상가주택 매 6.9억
- 치평동 상가 4층 임대 310㎡ 보5천만/월300만 (학원, 사무실 적합)
- 벽진동 마산마을부근 창고 230㎡ 임대 보3천만/월170만 (조정기)

대지·전용가능 녹지·전/답

- 총장로4가 중심상업지역 대지 2,270㎡ 매 41억
- 화정동 대로변 준주거지역 대지 945㎡ 매 27억
- 마북동 대지 701㎡ 매10억45천만
- 벽진동 대지 1,350㎡ 매 9억4천만
- 담양군 봉산면 가곡리 전 2,962㎡ 매 1.8억(주말농장적합)
- 무안군 청계면 전원주택부지 882㎡ 매 1.9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010-5536-0382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희소식 식후 혈당 상승억제에 도움!!
유한메디카 클리코엔(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 1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3 (주)유한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

문의 H.P 010-3598-7080/1899-3975

NAVER 건강정보 단비플라워 추천상품

단비플라워

축하화환3년 근조화환3년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